“불교인문학, 청소년 성찰 능력 함양”

조계종 불교사회硏 ‘미래세대 포교’ 주제 연찬회

불교 교사 참여 방안 제안
“불교 고유용어 접근성 낮아 인문학적 불교로 다가가야”
불교 인성교육 개발도 필요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청소년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쉽게 전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어려운 불교 용어가 아닌 ‘인문학적 불교’로 다가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소장 원철)는 11월 22일 서울 종로 전법회관 회의실에서 ‘미래세대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불교를 전할 것인가’를 주제로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에는 일선 중·고등학교에서 활동 중인 교사들이 발제자로 참여해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방안들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신희정 창원중앙고 교사는 ‘인문학으로서 불교 교육 가능성 탐색’ 발표를 통해 불교가 청소년들에게 인문학적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교사는 “현재의 청소년들이 쉽게 괴로움을 느끼지만 이를 다른 즐거움을 찾음으로써 회피한다. 이 같은 회피전략은 대상과 상황만 바뀔 뿐 괴로움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인문학으로서 불교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괴로움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리분석, 임상심리학, 문학과 철학, 그리고 역사 등 인문학의 방식과 힘을 빌려 불교는 청소년이 겪는 괴로움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회복하는 방법과 내면을 통찰하는 지혜를 길러준다”고 설명했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는 11월 22일 전법회관서 미래세대 포교를 주제로 연찬회를 개최했다.

다만 청소년에게 생소한 불교 용어로의 접근과 포교 목적으로 다가가는 인문학적 불교는 삼갈 것을 제언했다.

신 교사는 “불교를 포교하고 전법하려는 목적으로 다가가는 인문학으로서 불교는 청소년들과 진정성 있는 만남이 이뤄지기 힘들다. 또한 불교 고유 언어로는 소통이 불가능하다”면서 “불교는 청소년의 마음을 스스로 돌보고 올바르고 행복한 삶의 의미를 자신의 가치로 선택하도록 도움줄 수 있는 방식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진영 동대부여고 교법사는 불교적 가치관에 바탕한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권 교법사에 따르면 2014년 한국교육개발원 여론조사에서 초·중·고등학교 모두 현재보다 더 중시해야 할 교육 내용 1순위로 ‘인성교육’을 뽑았다. 하지만 공교육에서 종교적 인성교육은 어려움이 많다. 공교육에서 종교교육을 금지하는 종교자유 법령과 다른 종교에 대한 배타성은 공교육에서 종교인성교육을 현실적으로 어렵게 한다는 게 권 교법사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권 교법사는 “불교 인성교육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 후 수업 등 실제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불교인성교육’을 다년간 실시했다. 그 결과 긍정적 피드백을 받았다”면서 △불교적 가치관 바탕한 각종 교구·교재 개발 △불교융합교육차원의 인성교육 플랫폼 구축 △불교교육과 인성교육 목적 정립 등을 방안으로 제언했다.

이밖에도 이날 연찬회에는 김은미 한국교원대 강사가 ‘불교관련 교사용 지침서 및 교사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 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김영래 고려대 강사, 박범석 한국인성교육진흥원장, 김태영 동대부중 교사가 토론에 나섰다.

진흥원, 군종교구 7000만원 후원

오지부대 군포교 위해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은 11월 26일 ‘젊은 불교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혜자)에 군포교 진흥 지원금 7000만원을 후원했다.

이는 격지 및 오지부대 포교, 장병 수계법회, 군승 연수 및 교육, 수행, 포교자료 개발 등 군포교를 위해 사용된다.

이한구 이사장은 지원금을 전달하면서 “군승 등 군 포교 관계자들의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지원과 노력으로, 장병들이 부처님 법 안에서 희망적인 군 생활을 하도록 사기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며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고 물질·정신적으로 위기에 처한 장병들의 고민을 현장서 공감하고 소통하도록 종교적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불교진흥원은 설립 이후 군불교 진흥을 위해 매년 조계종 군종교구에 군포교 진흥기금 1억 원 내외를 전달하고 있다.

윤호섭 기자

생명나눔-중부대, 업무제휴 협약 체결

11월 22일 협약식… 생명나눔 문화 확산 상호협력


생명나눔과 중부대는 11월 22일 업무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와 중부대(총장 엄상현)이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손을 잡았다.

생명나눔과 중부대는 11월 22일 중부대 고양캠퍼스 세종관 대회의실에서 업무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생명나눔과 중부대의 업무협약은 학생들이 생명나눔 문화 확산 활동과 사회봉사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 △상호 인적자원의 활용에 관한 지원 및 협조 △중부대 학생 역량강화를 위한 기회 및 정보 제공 △중부대 신입생 유치를 위한 상호협력 △정부재정지원 사업의 공동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등을 추진키로 협의했다.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스님은 “생명의 소중함과 고귀함을 널리 알리는 좋은 뜻에 중부대와 손을 맞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엄상현 중부대 총장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생명의 귀중함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스님, 박종우 생명나눔 홍보위원회장, 김남명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엄상현 중부대 총장, 김춘호 대외부총장, 신현정 평생교육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포교전선 새 일꾼, 새 바람 기대

포교사단 13개 지역단장 선출
2020년 1월 1일부터 임기시작


정청현 정분남 장건환 윤나겸 강윤구 김용수
김효현 김명동 배동학 박해덕 이병연 이명직

조계종 포교사단 13개 지역단이 재구성됐다. 포교사단은 11월 한 달간 선거를 진행하고 새로 지역단장을 선출했다. 임기는 2020년 1월 1일부터 2년간이다.

먼저 서울지역단장에 정청현 포교사, 부산지역단장에 정분남 포교사, 대구지역단장에 장건환 포교사, 대전충남지역단장에 윤나겸 포교사, 광주전남지역단장에 강윤구 포교사, 전북지역단장에 김용수 포교사, 강원지역단장에 김효현 포교사, 충북지역단장에 김명동 포교사, 인천경기지역단장에 배동학 포교사, 경남지역단장에 박해덕 포교사, 울산지역단장에 이병연 포교사, 제주지역단장에 이명직 포교사, 경북지역단장에 강의수 포교사, LA지역단장에 이영미 포교사가 각각 선출됐다.

서울지역단장 정청현 포교사는 2000년 포교사 품수 후 서울지역부단장과 수석부단장을 거쳐 2018년부터 서울지역단장을 맡았다. 현재 포교사단 부단장이기도 하며 군포교 현장에서 포교활동을 하고 있다.

부산지역단장 정분남 포교사는 2013년 포교사 품수 후 2018년부터 부산지역단장 소임을 맡고 있으며, 군포교와 경찰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지역단장과 부산지역단장은 재임이다.

대구지역단장 장건환 포교사는 2009년 품수했으며, 사찰문화해설, 대외협력 등을 담당했다. 대전충남지역단장 윤나겸 포교사는 2010년 품수하고 2018년 전문포교사도 품수했다. 대전 사찰문화해설팀장으로 현재 지역단 부단장과 총괄팀장이다.

광주전남지역단장 강윤구 포교사는 2009년 품수하고 지역 군부대와 순천교도소에서 전법 교화에 앞장서왔다. 전북지역단장 김용수 포교사는 2012년 품수한 이후 사찰문화해설과 염불봉사에 나섰다.

강원지역단장 김효현 포교사는 2006년 품수 후 어린이 포교팀을 거쳐 현재 동해총괄팀 염불봉사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충북지역단장 김명동 포교사는 2009년 품수하고, 군포교 등에 매진해왔다. 인천경기지역 배동학 포교사는 2009년 품수 후 현재 새터민 통일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경남지역단장 박해덕 포교사는 사찰문화해설과 청소년 포교에 역주하고 있으며, 울산지역단장 이병연 포교사는 2013년 품수했다. 제주지역단장 이명직 포교사는 2012년 품수했으며, 교정교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경북지역단장 강의수 포교사는 1997년 포교사 1기로 품수했으며, 불교문화팀장 등을 맡고 있다.

노덕현 기자

‘불국사 열람실’ 네이밍 동판 제막식

동국대 경주캠 11월 26일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11월 26일 교내 중앙도서관 2층에서 ‘불국사 열람실 동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성타 스님(불국사 회주), 불국사 부주지 정문 스님을 비롯해 이대원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정각원장 법수 스님 등이 참석했다.

성타 스님은 불교 인재양성과 종립대학 발전을 위해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약 5억 원에 이르는 기부금을 포함해 동국대 서울캠퍼스와 동국대 의료원 등에 총 10억 7천만 원의 정재를 꾸준히 기부해 왔다.

성타 스님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동국대의 발전에 동참하겠다”며 “다른 사찰 및 스님, 불자들도 불교종립대학인 동국대의 발전에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대원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인재 불사를 위한 성타 스님과 불국사의 원력이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큰 힘이 된다”라며 “불교계의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참사람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 매주 수요일 밤 10-11시

부처님의 마음을 빗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 인 규 합장
불단, 수미단 닫집, 운각 특수불, 동불, 목불 단청개금, 순금개금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위패제작 건 축 맞춤 조성 가능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